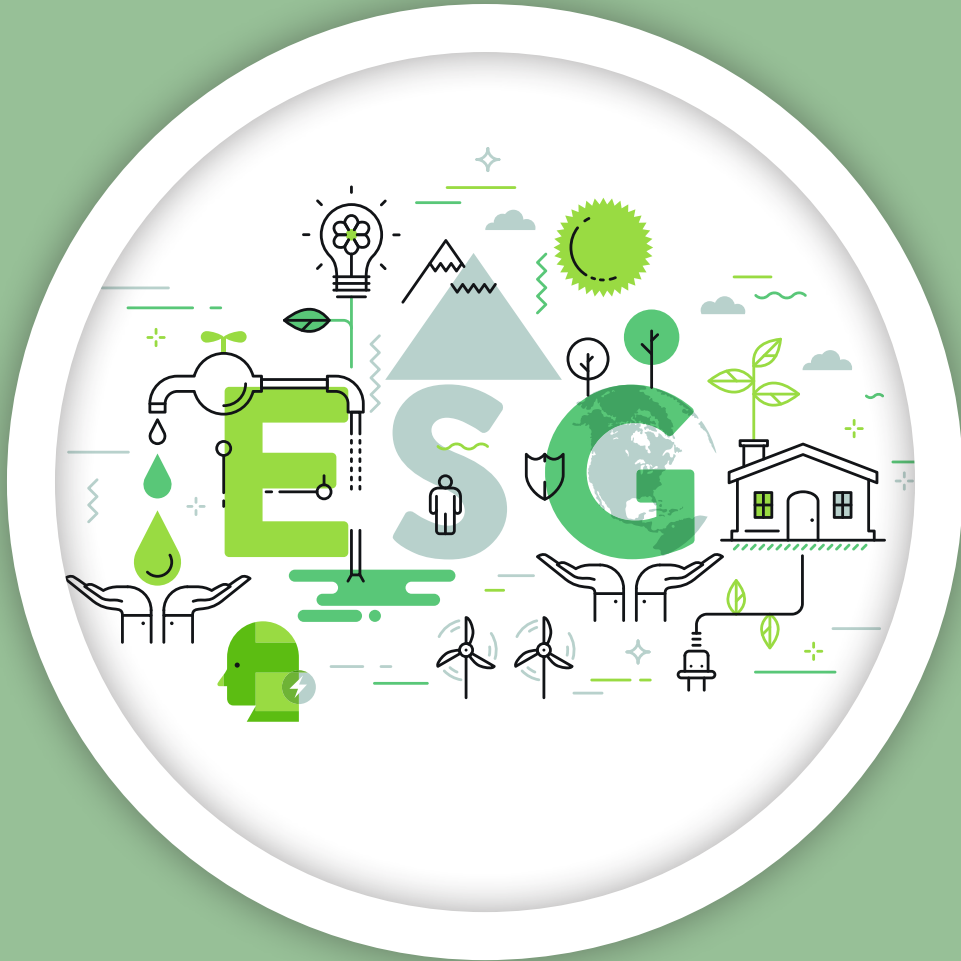


2021. 8.

중소기업 ESG 추진전략



CONTENTS

I. 중소기업 ESG 경영 필요성	1
II. 중소기업 ESG 추진 환경 분석	3
III. 중소기업 ESG 경영 추진 방향	6
IV. 맺음말	15

I. 중소기업 ESG 경영 필요성



I. 중소기업 ESG 경영 필요성

국내외 ESG 경영 트렌드 확산에 따라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ESG 경영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실제로 EU 공급망 실사 법안 도입이 논의되고 국내에서도 대기업의 협력사 ESG 관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자발적인 ESG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어떠한 준비와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논의와 해답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한 ESG 경영상의 당면 과제를 진단하고 향후 중소기업이 관리해야 할 ESG 실천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탄소중립 관련 규제 강화

파리협정과 기후변화 정부간 협의체(IPCC) 6차 특별보고서의 채택에 따라 UN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산업화 이전 대비 기온상승을 1.5~2°C 이하로 유지하기 위해 장기저탄소발전전략(LEDS)과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제출하고 있다. 설정된 감축목표에 대한 1차 이행 현황을 2023년 글로벌 차원에서 점검할 예정인데, 우리나라는 아직 IPCC 요구 수준과 국가 NDC 설정 수준 간의 정책적 격차(Policy gap)와 NDC 설정 수준과 국내 기업 이행 현황 간의 격차가 모두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향후 국제사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탄소배출 규제 강화 요구와 이에 따른 국내 기업 탄소 비용 상향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에게도 생산단계 및 제품 사용단계의 탄소영향 감축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다. 그러나 곧 다가올 현실에 비해 아직까지 국내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과 준비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2) 공급망 ESG 관리 요구 확산

한편 환경 뿐만 아니라 사회, 지배구조 측면의 리스크 관리 강화 요구도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가속화하는 대표적인 요인의 예시로 EU의 공급망 ESG 관리 의무화를 들 수 있다. '21년 3월 발의되어 '22년 말 Directive 형태로 채택이 예상되는 이 법안은 EU 역내 대기업 및 상장사 또는 고위험 중소기업, 금융기업을 대상으로 자사의 협력사에 대한 ESG 관리 원칙 협의와 해당 원칙에 대한 협력사 이행 여부의 정기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규제 대상이 되는 기업은 ESG 실사를 기반으로 공급망 ESG 실사 방법론과 실사에 따라 확인된 잠재 ESG 부정영향, 공급망 ESG 관리 우선순위를 '실사 전략 보고서'의 형태로 매년 공시해야 하며, 공급망 ESG 실사를 미이행하거나 공급망에서 주요 ESG 이슈가 발생했을 경우 벌과금부터 공공조달 입찰 배제, 정책적 지원 박탈과 수입 제재에 이르는 패널티를 받을 수 있다.

이와 같은 공급망 ESG 실사 의무화 움직임은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고객사의 ESG 평가 확대로 파생되어 비즈니스 관점의 ESG 관리 필요성에 대한 기폭제로 작용한다. 이미 국내외의 다국적기업들은 자사 제품을 생산하는 데 발생가능한 사회·환경적 리스크에 대해 공급망 전반으로 범위를 확대하여 관리하기 시작했다. 전통적인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는 아동노동, 강제노동, 인신매매나 생산공정 내 불법적인 유해물질 배출과 같이 가치사슬 내 존재할 수 있는 규제 위반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는 자사 제품 생산에 소요되는 전력을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것을 요구하거나, 제품 생산 과정과 그 공급망에 어떠한 환경/사회적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았는지 추적하고 이를 협력사가 스스로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이와 같이 ESG를 둘러싼 정책 급변과 고객사의 ESG 요구 강화는 곧 ESG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ESG를 바라보는 기준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ESG로 인해 중소기업에 발생가능한 기회 요인과 리스크 요인은 향후 더욱 더 증가할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은 늦지 않게 ESG 경영 체계를 도입하고 정부 규제와 고객사 및 소비자의 관련 요구사항에 대응할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의 ESG 경영 추진에 실무적인 길라잡이 역할을 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범위를 정의하고, 추진 방향을 제언하며 이를 위한 관리 사항 상세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중소기업이 최근 직면하고 있는 ESG 추진 관점의 경영환경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중소기업 ESG 추진 환경 분석



II. 중소기업 ESG 추진 환경 분석

(1) 정책지원 및 기회요인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대·중소 협력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는 ESG 경영 도입 또는 성과창출 확대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게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현재 진행/발굴되고 있는 주요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은 크게 금융지원과 ESG 역량 지원 두 갈래로 분류 가능한데, 전자는 주로 ESG 성과 우수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관점에서 자본조달 시 여신에 가점을 부여하는 형태로 대출/지원 한도 증액 및 금리우대 등의 금융혜택을 부여한다.

예컨대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중소기업 ESG 진단을 통한 인증기업 대상 정책자금 용자 우대 혹은 중소기업 사업 지원 시 가점을 부여하는 혜택을 도입 추진 중에 있다. 시중은행은 기업의 ESG 경영활동에 등급을 부여하여 우수 중소기업 대상 별도 지수를 구성하거나, 우수 기업을 대상으로 0.2%p에서 많게는 1.5%p까지 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대출상품을 운영 중이다.

ESG 우수기업 뿐만 아니라 우수기업이 추천한 협력사도 대출 이용이 가능한 상품도 생겨나고 있다. 특히 탄소 중립 이행 가속화를 위한 민·관의 친환경사업 투자 확대 흐름을 주목해야 하는데, 실제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여건과 감축 역량, 기대효과 등을 고려한 우대금리 제공이나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등에 대한 자본조달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다. 단적인 예시로 산업은행은 지난 2년간 친환경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약 7천억 원을 투입한 바 있다.

후자는 대기업의 주도로 ESG 경영을 희망하나 관련 자원 또는 기술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대기업의 관련 인프라를 공유하거나 ESG 관련 교육을 제공하는 동반성장형 모델이다. 국내 반도체 제조사인 A사는 협력사의 친환경 경영 이행에 필요한 역량 공유 및 산업 내 ESG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파트너십을 운영 중으로, 협력사와 환경 가치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공유하거나 유망 기술에 대한 자금 지원을 이행한다. ESG 경영 역량이 부족하여 고위험 협력사로 판별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ESG 역량지원 및 컨설팅을 실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이러한 형태의 중소기업 ESG 정책지원이나 육성사업의 경우 ESG 경영 도입기이거나 혹은 ESG 경영에 대한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중소기업보다는 어느 정도 ESG 추진에 대한 의지를 보유하고 이미 관련 역량을 축적하기 시작한 ESG 성숙기 중소기업의 육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실질적으로 ESG에 대한 개념 인지가 부족하거나 ESG 경영을 막 시작하고자 하는 단계의 중소기업은 앞서 언급된 정책지원 및 육성사업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이다.

(2) 리스크 요인

ESG 경영 역량을 확보하지 않은 중소기업은 기업의 지속가능성에 리스크를 부담하게 된다. 첫 번째로는 고객사 또는 최종소비자의 구매의사결정에서 경쟁열위에 놓여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기존의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는 제 3세계 분쟁광물 사용을 근절하고자 하는 전기·전자 업종과 아동노동/강제노동에 취약한 글로벌 의류/식품 제조기업에 그 영향력이 국한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기업과 EU를 중심으로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요구를 점차 확장함에 따라 공급망 ESG 평가는 산업 경계를 막론하고 확장되기 시작하여 ESG 경쟁력을 확보하지 않은 기업은 거래계약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국내 대기업의 상당수가 협력사 선정 시 환경, 안전/보건, 인권, 법률적 측면의 리스크 관리 역량을 이미 평가 기준에 반영하고 있다. 나아가 협력사의 ESG 관리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재계약 여부에 이를 반영하는 기업도 증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특성상 공급망으로부터의 위험 요인이 매우 강력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소비자 역시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기업의 ESG 경영 여부를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구매시 기업의 ESG 활동을 고려한다는 응답비율은 63%였으며, ESG 활동에 부정적인 기업의 제품을 의도적으로 구매하지 않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도 70.3%에 달했다.('21.5, 대한상의 ESG경영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결과)

두 번째로 ESG 경영 수준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판단하는 금융권의 ESG 투자 확산으로, ESG 리스크가 높은 기업은 자본조달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재무건전성 또한 위험에 놓일 수 있다. EU는 금융기관 투자 및 금융거래대상의 지속가능금융 공시 규제(SFDR)를 2021년 3월부터 시행중이며, 글로벌 3대 자산운용사인 BlackRock, Vanguard, SSGA는 모두 ESG 요소를 투자자의사결정과 의결권 행사에 반영하고 있다. 신용평가기관 역시 자체 ESG 평가 기법 도입을 통해 ESG 성과를 기업 신용등급 조정에 반영한다. 이러한 자본시장의 움직임은 국내에도 영향을 미쳐 은행의 투자포트폴리오 설계와 여신 프로세스에 기업의 ESG 리스크를 보다 깊숙이 침투시키고 있다.

(3) 내부 제약요인

중소기업은 다국적 기업, 대기업과는 달리 ESG 경영 추진의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특성을 보유한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 지원과 가이드가 보다 높은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중소기업의 경영특수성과 운영상의 구조적 특징을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

a.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일반적으로 기업 오너가 경영인의 역할을 부담하는 중소기업 특성상 경영 방향이 전적으로 오너 개인에게 의지되며, 대기업의 ESG 경영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요소 중 하나인 거버넌스(G) 요소들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예컨대 절대적 다수의 중소기업이 비상장기업이므로 대리인 문제(Agency Problem)를 우려할 필요가 없고, 따라서 주주권 보호와 배당 확대를 위한 일체의 경영상의 장치가 불필요하다. 한편 이사회를 통한 경영진의 의사결정 견제와 감독을 적용하기 어렵다.

상장사의 경우 주주행동을 통해 ESG 리스크 관리 및 감독에 대한 중대한 미비사항 발생 시 경영진 재선 임 반대 등의 형태로 책임을 묻는 행위가 가능한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실질적으로 ESG 관련 정부 규제가 매우 강화되지 않는 이상 기업의 오너이자 경영인인 CEO에게 ESG 관리 미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안이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기업의 ESG 경영 추진 여부와 방향의 상당 부분을 중소기업 경영진의 자발적 의지에 기대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중소기업은 지주회사/자회사 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운영상의 상당한 자율성이 확보된다. 이는 대기업에 비해 신속한 의사결정과 이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한편, ESG 추진 방향 설정과 전략적 자원 배분 방식도 CEO 개인과 조직 내 보유 역량에 따라 크게 좌우될 우려가 있다.

b. 단기지향적 의사결정

중소기업은 현금흐름과 단기실적 중심의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기업의 ESG 경영 추진 과정에서 비용 또는 투자가 요구될 시 ESG 경영에 소요되는 자원 투입을 지연 또는 유보하기 쉽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ESG를 통한 중장기 관점의 경쟁력 확보보다는 ESG 경영을 이행하지 않았을 시 발생가능한 규제비용이나 영업손실 등 단기적 영향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c. 내부 자원 및 업무/역할 분배의 비공식성

국내 중소기업은 2019년 기준 100인 미만 사업장이 전체의 87%로 기업 규모 고려 시 업무 분배가 비체계적이며 유동적이고, 겸직이 많아 ESG 경영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역할 분배가 어렵다. 이에 중소기업의 ESG 추진 가이드는 ESG 각 영역에서 요구되는 보편적이고도 단순한 형태의 관리 방향을 안내하고, 해당 영역의 관리에 필요한 중점 사항에 대해 ESG 전문성이 낮은 일반 근로자가 이해하기에도 명확한 수준으로 제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III. 중소기업 ESG 경영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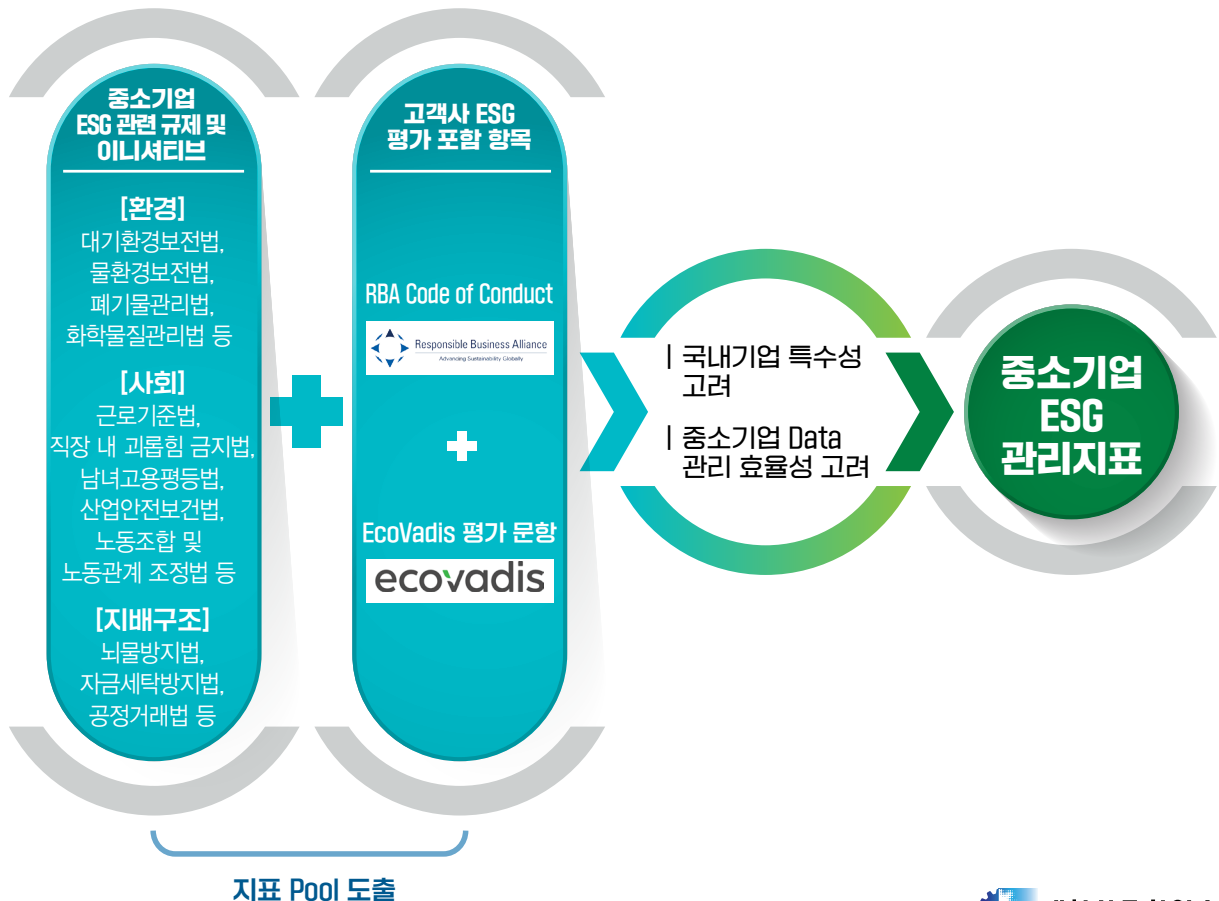
III. 중소기업 ESG 경영 추진 방향

(1) ESG 관리지표 및 실천과제 도출

중소기업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중소기업이 추진해야 할 ESG 과제를 도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중소기업이 ESG 추진에 있어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 범위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이 당면한 이해관계자 요구 사항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우선 국내·외 규제 당국의 ESG 관련 규제를 살펴보았다. 중소기업 대상 ESG 관련 규제는 보편적 관점의 중요성을 평가하기 위해 특정 산업에 한하여 적용되는 내용과 산업 공통으로 적용되는 내용으로 분류하여 산업 공통으로 적용되는 규제의 경우 대응 시급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였다.

두 번째로 최근 공급망 ESG 관리 요구 증대에 따라 중소기업의 주요 고객사인 대기업/글로벌기업이 협력사 평가 시 사용하는 ESG 평가 기준을 점검하였다. 여기서 점검 대상으로 설정한 ESG 평가 기준은 대기업과 상장사의 ESG 리스크 관리 수준을 평가하여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인 자본시장의 ESG 평가(예컨대 MSCI, KCGS, S&P ESG Evaluation, Sustainalytics 등)와는 구별되는 것으로 글로벌 공급망 ESG 평가 이니셔티브인 RBA(책임있는 비즈니스 연합)와 EcoVadis의 협력사 ESG 평가 기준을 참고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한 중소기업 ESG 관리지표는 아래와 같이 설정 가능하다.

중소기업 ESG 관리지표 도출 Frame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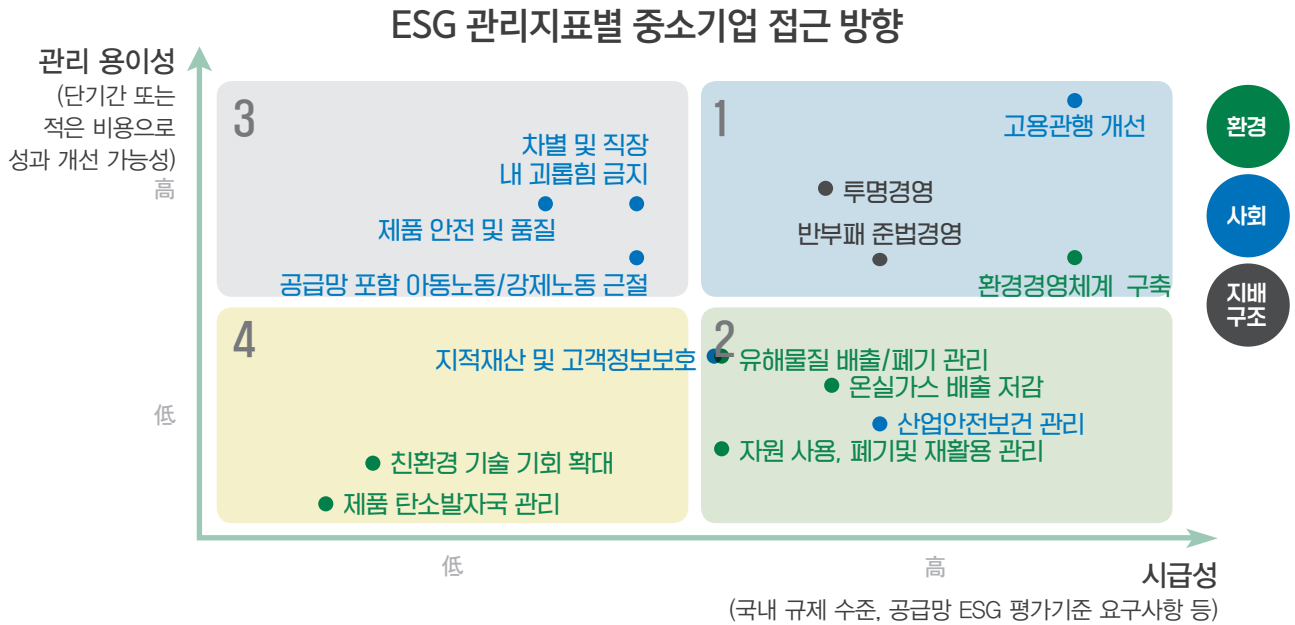
중소기업 ESG 관리 주요 지표

영역	지표
환경 (6)	환경경영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 저감
	자원 사용, 폐기 및 재활용
	유해물질 배출/폐기
	제품 탄소발자국
	친환경 기술 기회
사회 (6)	고용 관행
	공급망 포함 아동노동/강제노동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산업안전보건
	지적재산 및 고객정보보호
지배구조 (2)	제품안전 및 품질
	투명경영
	반부패/준법경영

제시된 ESG 관리지표는 중소기업이 ESG 경영을 추진하는 데 있어 염두해야 할 ESG 경영의 범위(Scope)라 할 수 있다. 이제 각 ESG 관리지표에 대한 일반적 우선순위를 통해 지표별 관리 방향 수립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ESG 관리지표를 중소기업의 대응 시급성과 관리 용이성 측면에서 우선순위화 할 수 있으며, 이는 각 중소기업 별 자사 비즈니스 특성과 당면 규제 등 경영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SG 관리지표별 중소기업 접근 방향

ESG 관리지표 평가관점	평가 기준	점수산정식
시급성 (a) x (b)	· (a) 관련 리스크/기회 발생 시 재무영향 발생 가능성 - 관련 사항에 대한 리스크/기회 발생 시, 재무 영향 내부화 가능성 및 관련 영향의 크기	평가 점수에 따라 5점 척도화 (Very low = 1, Low = 2, Medium = 3, High = 4, Very high = 5)
	· (b) 공급망 ESG 평가 기준 요구 빈도 - RBA, EcoVadis 기준 평가항목 내 포함 여부 및 평가 구체성, 관련 평가 항목 수	관련 평가 항목 개수에 따라 1~5점 구간화
관리 용이성 (c) x (d)	· (c) 관리체계 수립 및 개선활동 추진 시 예상 소요 기간 - 단기간 내 개선 가능할 시 관리용이성 高	평가 점수에 따라 5점 척도화 (Very low = 5, Low = 4, Medium = 3, High = 2, Very high = 1)
	· (d) 리스크 관리 및 역량 확보를 위해 필요한 활동 및 자원 - 내부 공정 개선을 위한 자원 투자, 중장기 연구개발, 외부 투자 유치 등 필요 시 관리 용이성 低	



- 이와 같이 ESG 관리지표별 시급성과 관리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포 영역에 따라 관리 방향을 달리할 수 있다. 우선
- (1) 우측 상방 매트릭스 내 분포하는 영역은 관리 필요성에 대한 대외 요구가 상당한 수준이면서 단기간 내 관리체계 수립이 가능한 영역으로 ESG 경영을 시작하는 중소기업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된다. 특히 고용관행 개선의 경우 조직의 채용 과정에서 성별, 나이, 인종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방침을 수립하고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할 최소한의 사항들이 이행되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예컨대 연장근로 현황, 최저임금 대비 조직의 임금 지급 수준 관리 등을 꼽을 수 있으며, 이는 고용노동법 관점에서도 필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항목이므로 조직 내 관리체계 수립을 통해 규제 대응이라는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 역량도 확보할 수 있다. 투명경영, 반부패/준법경영, 환경경영체계 역시 규제 대응 측면 및 고객사 ESG 평가 대응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관리역량이 확보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 (2) 우측 하방 매트릭스 내 항목의 경우 관련 외부 평가와 규제 수준이 점차 강화되는 추세로 그 중요성은 매우 크나, 관리체계 구축 및 실질적인 성과창출에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이므로 중장기적 관점의 계획 및 목표를 수립하고 전략적인 성과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다. 대표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저감과 유해물질 배출/폐기 등의 환경 관련 사항이 포함되며, 특히 제조업에서 중요하게 평가되는 산업안전/보건 이슈와 고부가 지식기반 산업 또는 소비자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기업에게 중요한 지적재산/고객정보보호가 있다.
 - (3) 좌측 상방 매트릭스 내 분포하는 항목은 국내 규제 여건상 생소하거나 이제 막 논의가 확대되고 있는 영역으로 다른 지표에 대해 당장의 대응 시급성은 낮을 수 있으나, 단기간 내 관리체계 수립이 가능한 영역으로 (1) 영역의 개선과 (2) 영역의 개선계획 수립이 어느정도 완료된 중소기업이 ESG 역량 고도화 측면에서 단계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제품 탄소발자국, 친환경기술 기회가 분포한 (4) 좌측 하방 매트릭스는 ESG 리스크 관리 및 규제 대응 측면의 접근보다는 향후 조직의 사업측면에서 경쟁력으로 작용가능한 기회의 영역으로 관련 역량 및 기술 확보에 상당 기간이 소요되나 향후 국내외 환경규제 강화 전망 고려 시 ESG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고 관련 시장 내 사업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다. 이에 각 영역별 관리지표의 정의와 관리 방향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ESG 관리지표별 중소기업 관리 방향

구분	관리지표	관리 방향
(1) 단기 내 우선 추진 (시급성 高, 관리 용이성 高)	[사회] 고용 관행	정규직 고용 비중 확대, 공정한 처우와 임금제공, 법규상 근로시간 준수 및 휴식 시간 보장, 고용상의 차별 금지, 결사의 자유 보장
	[지배구조] 투명경영	주요 의사결정사항에 대한 구성원 정보공유 확대, 투자자 소통 및 재무/비재무 정보 공개 강화를 통한 경영상의 정보 비대칭 해소
	[지배구조] 반부패준법 경영	기업 운영 과정에서 요구되는 법규와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임직원 및 경영진의 청렴성 및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윤리경영 정책 수립, 윤리경영 이행 현황 점검 및 내·외부 감사체계 확립
	[환경] 환경경영 체계	환경경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내부 관리인력, 데이터 관리 등 체계 정비, 목표 수립 및 환경성과 개선 이행, 대외 환경경영인증시스템 (ISO 14001 등) 획득
(2) 중장기 대응 계획 수립 (시급성 高, 관리 용이성 低)	[환경] 유해물질 배출/폐기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휘발성 유기화합물(VOC), NOx, SOx, 미세먼지 등 주요 유해물질 및 유해폐기물 최소화, 배출 및 폐기 관리 상의 환경 규제 준수
	[사회] 지적재산 및 고객정보보호	자사 중요 정보 및 고객정보에 대한 관리체계 수립, 사내 정보보안 시스템 점검, 정보보호 책임자 지정
	[환경] 온실가스 배출	사업장 운영 및 생산단계 에너지 사용 효율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추진으로 기후변화 관련 규제 강화에 대응 역량 확보
	[사회] 산업 안전보건	근로자 재해율 관리 및 경감을 위한 노력, 중대재해·직업성 질환 발생 방지를 위한 근로환경 개선활동 이행 (위험작업 식별/평가 등), 사업장 안전문화 구축 및 근로자 안전교육 실시
(3) ESG 역량 고도화 (시급성 低, 관리 용이성 高)	[환경] 자원 사용·폐기 및 재활용	원자재, 용수 등 자원 사용량 저감 활동 및 적절한 폐기절차 확립, 폐기물 매립량 최소화 및 재사용·재활용 증대 추진
	[사회]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직장 내 차별 및 부당한 대우 근절, 강압적 연장/주말근로 및 불공정한 성과평가 지양, 근로상의 인권 리스크 예방
	[사회] 제품안전 및 품질	제품 안전사고 발생 최소화 관점의 품질검사 실시, 대외 품질인증 획득 등
4) ESG 기반 비즈니스 기회 확보 (시급성 低, 관리 용이성 低)	[사회] 공급망 포함 아동노동/강제노동	자사 및 공급망 내 미성년 근로자의 부적법 채용이나 취약계층 강제노동 이슈 발생 방지 및 관련 상품/원재료 구매 근절
	[환경] 친환경 기술 기회	신·재생에너지, 탄소포집 및 에너지 저장장치, 폐수처리/폐기물 재활용 등 친환경 기술 역량 축적 및 관련 사업기회 확장
	[환경] 제품 탄소발자국	제품단위당 조달 및 생산단계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 측정 및 관리로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제품 유통·운송 시 환경영향 최소화를 통한 고객 친환경제품 수요 선점

ESG 경영을 추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이러한 우선순위와 접근법에 기반하여 자사의 ESG 관리 방향을 수립할 수 있으며, 각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ESG 리스크와 기회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 항목에 대한 자사의 현황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국내외 규제 요구수준과 공급망 ESG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중소기업이 각 ESG 관리지표별 내부 현황을 자가 진단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관리지표별 ESG 체크리스트

영역	관리지표	관리 방향
환경	환경경영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내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또는 부서가 지정되어 있는가? 전력/수자원 사용량, 탄소배출량 등 환경성과의 측정이 주기적·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ISO14001 등 외부 환경경영인증을 취득할 계획 및 필요성이 있는가?
	온실가스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이 직접 발생시키거나 에너지 사용을 통해 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 및 관리하고 있는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에 대한 계획 및 목표가 수립되어있는가?
	자원사용/폐기 및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수자원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은 법적 요구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폐수 및 폐기물 처리 방식은 적법한가? 조직 내 수자원 사용량 절감 및 폐기물 감축/재활용 확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가?
	유해물질 배출/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해물질 배출량과 폐기 방식은 법적 요구 수준을 충족하고 있는가? 유해물질 배출량 절감에 대한 계획 및 목표가 수립되어있는가?
	제품 탄소발자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단위당 탄소배출량을 측정 및 관리할 수 있는가? 저탄소 제품 제조 및 출시를 통한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가?
	친환경기술 기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은 친환경기술에 투자 및 개발하고 있는가? 동종/경쟁사 대비 자사 제품이 우월한 친환경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현재 조직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과 미래에 영위할 사업은 소비자의 친환경제품 선호 증대에 따라 더 많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가?
	사회	고용 관행
공급망 포함 아동노동/강제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고용 관행 내 아동노동/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는가? 조직의 핵심 공급망 내에서 발생가능한 아동노동/강제노동 리스크는 없는가?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고충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의사소통 채널이 존재하는가? 조직문화 및 근무만족도에 대해 주기적으로 평가/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하는가? 조직 내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괴롭힘 또는 성희롱 등의 인권 침해 발생 시 이를 처리하는 적절한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는가?
산업 안전 및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정 및 사업장 내 위험작업을 식별하고 관리하며 위험작업에 대한 적절한 완화 조치를 이행하고 있는가? 근로자에게 안전/보건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근로자 재해율의 최근 3개년 추세는 어떠한가?
지적재산 및 고객정보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내 모든 지적 재산 및 주요 영업정보의 반출/입이 적절한 보안관리시스템 하에서 행해지는가? 근로자 대상 정보보안 교육을 실시하는가? 인적, 물리적 보안리스크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가? 사내 정보보호 담당자가 지정되어있는가?
제품 안전 및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품/상품의 품질을 검수/평가하고 관리하는 프로세스가 공식화되어있는가? 지난 3년 간 제품 관련 품질 이슈 및 반품, 리콜 등의 발생 추세는 어떠한가?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 및 피드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품 개선에 반영하고 있는가?
투명경영/ESG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상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에 앞서 최고경영진이 조직 내 일부 또는 전체 구성원과 충분한 소통을 이 행하는가? 조직의 자금 관리 및 집행이 독립적인 부서/인력에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가? 조직의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가 적법한 형태로 주기적으로 작성되고 관련 법인세를 성실히 납부하는가? 조직의 주요 ESG 리스크/기회에 대해 관리하고 고객사 요청시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가?
지배 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은 사업 운영상 준수해야 하는 경제/사회/환경 측면의 법규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리스크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는가? 윤리경영에 대한 임직원 행동강령/방침 등이 명문화되어있는가? 고객사와 계약체결 시 발생가능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입찰 단계부터 거래 성사, 용역 종료시까지 법률 및 절차상의 공정성을 준수하고 있는가? 임직원의 윤리규정 준수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내부에서 발생가능한 부패/뇌물수수/자금세탁 등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는가? 	

앞선 체크리스트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은 스스로 자사의 현황을 진단하여 개선이 필요한 영역을 발굴하고, 자사에게 적합한 ESG 개선과제를 수립할 수 있다. 도출된 개선과제는 이행 현황 및 진척도, 추가 점검 및 의사결정 필요사항에 대해 경영진이 직접 주도하여 주기적인 성과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중소기업 ESG 실천 과제 도출 예시

접근 방식	ESG 실천과제 구분		
	환경	사회	지배구조
(1) 단기 내 우선 추진	[환경경영 체계] - 환경 담당자 지정 - 관련 데이터 취합관리 - 외부 인증획득 추진	[산업 안전/보건] - 고위험작업 식별 및 작업위험성 경감 - 재해율 저감 목표 수립	[반부패 및 준법 경영] - 윤리강령 제정 - 내부 윤리경영 점검 체계 구축
	[온실가스 배출] -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 체계화 -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 목표 수립	-	-
(3) ESG 역량 고도화	-	[차별 및 직장내 괴롭힘 금지] - 조직문화 Survey 도입 및 교육 실시 - 임직원 고충처리 채널 마련	-
(4) ESG 기반 비즈니스 기회 확보	[친환경기술 기회] - 친환경제품군 지속 확대 - 대/중소 연계 파트너십 참여를 통한 투자 유치 모색	-	-

(2) 체계적인 정보 관리

앞서 제시한 프로세스로 ESG 현황 진단과 실천 과제를 확인한 중소기업은 이후의 체계적인 현황 및 성과관리를 위해 우선적으로 안정적인 데이터 관리 체계를 확보해야 한다. ESG 데이터 관리란 ESG 관리지표별 규제대응 및 고객/고객사 요구사항 대응을 위한 조직 내부 현황정보의 연속성 있는 식별 및 축적을 뜻한다. ESG 관련 내부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업은 향후 실무담당자 변경 시에도 일관되고 연속성 있는 ESG 성과관리가 가능하며, 규제당국이나 고객사의 ESG 관리 성과 및 관련 데이터 요구 시에도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다.

ESG 관리지표별 최소한의 관리 필요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다. 효과적인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전 산시스템 또는 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ESG 데이터 전반의 관리창구 일원화가 가장 바람직하나, 여건상 가능하지 않을 경우 사내 유관 인력에게 담당 데이터의 관리 책임을 분배하고 주기적으로 전체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트 하는 형태의 관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적시성있는 ESG 정보 관리를 위해 최소 연 1회 이상 아래 사항들의 현황 파악과 데이터 최신화를 권고한다.



ESG 관리지표별 관리 필요 데이터

ESG 관리지표	관리 필요 데이터
환경	환경경영 체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경영 담당자 및 조직 체계 • 환경경영시스템 취득 현황 (인증 획득일 및 유효기간)
	온실가스 배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산화탄소 배출량 • 에너지 사용량
	자원사용/폐기 및 재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배출량 • 폐기물 배출량 중 매립량 • 폐기물 재활용량 • 용수 취수량 및 방류량 • 용수 방류 시 수질오염물질 (BOD, COD) 배출량 • 용수 재사용량
	유해물질 배출/폐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OC, NOx, SOx, TN, PM, SF6 등 자사 제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 배출량
	친환경기술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기술 특허 보유 현황 • 동종사-자사 대비 또는 자사 기존제품과 대비 시 제품의 환경효율 우수성 • 전체 매출액 중 친환경사업 매출 비중
	제품 탄소발자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별 단위당 탄소배출량
사회	고용 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수 (성별, 연령별, 국적별 구분) • 비정규직 (계약직/시간제 근로자) 비중 • 최저임금 대비 자사 임금 수준 • 남녀 평균 임금비율 • 근로자 개인별 연장근로 시간 현황
	공급망 포함 아동노동/강제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급망 내 아동노동/강제노동 이슈 발생 가능 영역 유무
	차별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직원 이직률/퇴사율 • 사내 고충처리 접수 건에 대한 조치현황
	산업 안전 및 보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율 • 직업성질환 발병률
	지적재산 및 고객정보보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보호시스템 감사/관리 주기 • 정보보호 교육 시간 및 교육을 이행한 근로자 수 • 정보보호 관련 대외 인증 취득 현황 • 정보유출 발생 현황
	제품 안전 및 품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체 제품 중 품질검사 이행하는 제품 비중 • 제품 리콜/환불 발생 현황 • 고객만족도 현황
사회	반부패/준법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경제/환경/사회 관련 대응 필요 법규 준수 현황 • 조직의 윤리규정에 서명하였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임직원 수 • 윤리경영에 대한 내부 점검 및 감사 현황 • 고객사와 체결한 윤리경영/ESG 관련 가이드라인/서약서 체결 현황 및 고객사 요구 준수 현황

(3) 파트너십을 통한 성과창출

ESG 실천과제를 도출하고 데이터 관리 체계를 수립한 조직은 ESG 성과 창출 및 관련 성과의 소통을 통한 경쟁 우위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최근 중소기업의 ESG 성과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대기업과 금융기관의 지원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ESG 지원사업]

기업명	ESG 관점 동반성장 추진활동
 LG화학	- 협력사 대상 ESG 교육 간담회 개최로 강화되는 ESG 규제 및 정책에 협력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 지원 예. (화학물질 안전) 관련 국내 법규 주요 내용 공유 (에너지 효율) 설비 및 관리체계 교육 및 진단
 SK hynix	- 반도체 산업 내 환경문제 공동 해결을 목표로 "Eco Alliance" 구축, 전문컨설팅과 교육 등 지원 예. (환경경영) 환경 관련 기술/노하우 공유 및 법규 이슈 대응 (지적재산 보호) 협력사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지속성장 지원 (산업 안전·보건) 협력사 환경, 안전·보건 분야 법규 지원

[시중은행 ESG 특화 대출상품]

기업명	상품	내용
 신한은행	신한ESG 우수상생지원대출	ESG 우수기업에 연 0.2~0.3%p 금리 우대
 NH농협은행	NH친환경기업 우대론	환경 기여도에 따라 최대 1.5%p 금리 우대
 KB국민은행	KB그린웨이브 ESG기업대출	평가기준 충족에 따라 최대 0.4%p 금리 우대
 BNK경남은행	E-Green Loan	친환경인증 획득 기업 대상 대출 한도 우대, ESG특별금리감면 최대 0.5%p 적용
	환경·안전 설비 투자 펀드	대기오염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안전 설비 신규 투자 기업 대상 특화 대출상품
 <small>참! 좋은 은행</small> IBK기업은행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금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용자 추천 받은 기업 대상 특화 대출상품
	늘푸른하늘 대출	신재생에너지, 친환경발전 등 사업 영위 중소기업 대상 연 1.0%p 금리감면 혜택
 우리은행	우리ESG 혁신기업대출	친환경 관련 인증서 보유기업에 0.1%p,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자동이체 실적,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1~1.5%p 우대금리 제공

ESG 경영체계를 구축한 중소기업은 자사의 ESG 경영 추진 의지와 관리 현황을 기반으로 관련 기회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더 큰 ESG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한 사업 확장을 달성하여 대·중소 협력모델과 ESG 기반 중소기업 금융지원의 성공사례로 발돋움할 수 있을 것이다.

(4) 대외 커뮤니케이션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에게도 ESG 정보공개는 ESG 성과를 기반으로 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다. 중소기업은 많은 정보량을 요구하는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이외에 홈페이지 내 자사 ESG 경영 현황 공개, 제품 및 기업 설명자료에 ESG와의 전략적 연계성을 확대하는 등의 방안으로 이해관계자에게 효과적으로 ESG 추진 성과를 소통할 수 있다. 정보공개 콘텐츠는 앞서 (2) 체계적인 정보 관리 부분에서 제시한 ESG 관리 데이터 항목을 기반으로 현황을 공시하고, 각 항목에 대한 조직의 관리 방향과 주요 성과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구성 가능할 것이다. 또한 공개 정보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게 서술된 것임을 입증하기 위해 ESG 정보 공개의 제 3자 검증을 획득하는 것도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

IV. 맺음말



IV. 맺음말

중소기업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어렵고 경기변동에 대한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아직까지는 ESG를 재무성과와 상충되는 또는 본업과는 거리가 있고 추가적으로 부담해야하는 규제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경영환경과 인력 등 자원 규모를 고려했을 때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현상이다.

다만 최근의 ESG 경영에 대한 요구는 비단 환경/사회적 가치 창출을 통한 기업의 평판 및 이미지 제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기후변화가 생존을 위협하고 사회 구성원의 다양성과 존엄성에 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앞으로 기업에 대한 환경, 사회적 규제 강화와 이해관계자 요구 증가는 정권이나 이념의 변화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강화될 것이다.

이에 중소기업에게도 ESG 경영은 기업의 생존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경영 현안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ESG 추진에 있어 무엇을, 어디부터,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 방향에 대한 제시는 정부와 민간기관을 막론하고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가 ESG 경영을 바라보는 중소기업의 시야를 조금이나마 명료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